

귀소본능과 양계



최 희 철 연구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귀소본능(歸巢本能)이란 실용과학전문용어대역사전에 보면 자신이 산란 또는 서식하던 장소를 떠났던 동물이 그 장소로 돌아오는 본능적 경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어는 대표적인 회기동물로서 연어과(魚科 Salmonidae)에 속하며 가을에 산란을 하고 봄에 부화를 하여 부화 된지 몇 주일 후에는 바다로 돌아간다. 그리고 바다로 내려간 지 3~4년 만에 성숙하여 모천(母川)으로 회귀한다. 바로 자신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 태평양까지 갔던 연어가 엄청난 거리를 헤엄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철새는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한다. 북반구의 철새들은 보통 여름에 북쪽에서 번식하고, 남쪽에서 겨울을 보낸다. 이와는 달리 단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도 있다. 장거리로 이동하는 새들은 약 13,000km의 거리를 여행한다고 한다.

비둘기는 성서에 보면 엄청난 홍수가 나서 배에 갇힌 사람들이 비둘기를 날려 보내면서 홍수가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비둘기의 귀소본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비둘기를 이용해서 급한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활용했다고 한다. 이는 비둘기를 집을 중심으로 귀소하는 것을 오랜 기간을 두고 학습시키고 점차 그 거리를 멀게 해가면서 훈련을 하여 결국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매우 먼 곳에서도 소식을 갖고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업농촌 귀환에 힘입어 농촌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도시에서의 번잡한 일상을 접고 농촌





에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려는 30~50대가 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별로 일자리를 창출해가면서 타산업의 인력을 유입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귀농·귀촌 종합 대책을 세우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을 가진 사람, 대졸자나 대학원 졸업자 등 현대사회를 주도해가는 세력들이 농촌에 들어가면서 농촌에도 활력을 주고 있다. 이들은 농촌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

이들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자체에 따라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창업 지원사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 농업인턴사업, 귀농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인의 영농기술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귀농인 양계 사육자들은 농산부산물과 잔반 등을 사료로 이용하고 퇴비도 생산하며 자가소비 계란이나 닭고기를 얻을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는 꼼꼼하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농촌진흥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설한 귀농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착실한 준비를 한 후 귀농을 하게 된다.

이들 귀농자의 특징은 기존의 물량중심의 기존 농사법에서 탈피하여 틈새시장을 파고 들고 있다. 이를테면 환경농업이나 테마농업, 체험농장 등 도시생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가면서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직거래 위주로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 트렌드에 따라 양계농가에도 귀농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귀농양계인의 유형을 보면 유정란을 생산하는 친환경 전업양계인, 타작물을 재배하면서 자가소비용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부업형, 50~60종 이상의 여러 가지 예쁜 닭 품종을 보유하면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취미형 양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귀농인 양계 사육자들은 농산부산물과 잔반 등을 사료로 이용하고 퇴비도 생산하며 자가소비 계란이나 닭고기를 얻을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외국에서도 닭은 이미 반려동물로서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애정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로서 개, 고양이와는 달리 계란까지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원주택을 지을 때에는 꼭 닭장까지 지어 닭과 함께하는 전원생활의 필수 반려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간혹 아파트에서까지 닭을 키우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취미·관상 닭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며 몇몇 희귀 닭 품종은 한 쌍의 가격이 300~500만원씩하고, 종란도 개당 10만원씩 거래되고 있어서 황금알에 못지 않은 관심산업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소규모 양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은 도시민이 닭 사육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과 사육장간의 거리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소음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에서는 아예 수탉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08년도에 서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듯이 소규모 양계농가에서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어서 방역과 예방접종에는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튼 이러한 귀농 트렌드와 도시인의 반려동물 사육 증가 등과 맞물려 소규모로 닭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사육방식과는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사육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양계산업도 그린, 친환경의 색으로 덧입혀서 녹색이미지를 부각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소규모 양계농가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직하다. 